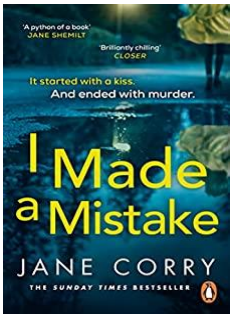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I MADE A MISTAKE

가제 : 한 번의 실수

저자 : Jane Corry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20년 5월 22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250,000부 판매 기록과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 셀러 작가의 신작**
*** 단 하룻밤 실수로 인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심리 스릴러.**

주인공 포피 페이지의 생각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유형의 여성이 존재했는데, 남편에게 충실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었다. 포피는 지금껏 자기 자신이 둘 중 어느 쪽에 속하는 여자인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력적인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 이 일은 그저 한 번의 실수로 끝나게 될 수 있을까?

1월 어느 이른 저녁, 워털루역 3번 플랫폼.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고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을 주의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열차가 가까워지자 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조금이라도 먼저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 몸싸움을 해가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열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브레이크가 내는 굉음이 역 안을 울려댔고, 한 여자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로부터 6주 전, 한 때 잘나가던 배우였던 포피 페이지는 엑스트라 배우들과 함께 에이전시를 중심으로 열린 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 중이었다. 그녀는 한 때 잘나가는 배우였고 지금은 그 때의 경험을 살려 시작한 엑스트라 배우 에이전시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결혼한 지 이제 20년째 된 그녀의 남편 스튜어트 역시 성공한 치과 의사였으며, 둘 사이에는 두 딸, 멜리사와 데이지가 있었다. 파티 장소는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성공의 연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실 포피는 오늘,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든 딸들과 실랑이를 하느라 하마터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뻔했었다. 아마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 베티가 아니었다면 그녀가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지켜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포피가 멜리사를 낳고 각종 오디션에 낙방하고 있을 무렵,

포피에게 그녀는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바깥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말하면서 배우 에이전시를 시작해보라고 제안한 것도 역시 베티였다. 베티는 포피가 바라던 완벽한 어머니상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남편 스튜어트는 좀 달랐다. 그는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늘 치과 일에 매달려 있느라 포피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늘 무신경한 편이었다.

파티에서 만난 포피의 친구 제니퍼는 한 동물원 배경 영화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목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가 바로 이 파티장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포피는 그 배우의 이름인 '매튜 고든'이라는 이름을 듣자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23년 전 포피가 사랑했던 옛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제니퍼는 포피에게 매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다. 포피는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는 여배우들 사이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는, 여전히 멋지고 매력적인 그의 모습을 보았다. 매튜는 곧 포피를 알아보았고, 포피가 망설일 틈도 없이 성큼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포피를 바라보았다. 포피는 매튜와 함께 했던 나날들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고 온갖 감정이 밀려왔지만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남편 스튜어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고 택시마저 잡히지 않자 결국 포피는 매튜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의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매튜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포피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후로도 그녀는 매튜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 후 여름, 런던 중앙 법원, 포피는 법정에 서 있었다. 판사는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사망한 매튜 고든과 포피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와는 어떤 사이인지 물었고, 포피는 매튜와 그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베티는 살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포피에게 수 많은 편지를 보냈다. 베티는 젊은 시절 자신의 남편 조크와 살면서 그녀가 저질렀던 수 많은 실수와 비밀, 또 불운한 우정 관계로 끝난 친구 제인에 대해 들려주면서 훗날 인생 후반부에서 친딸과 같은 며느리인 포피를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야기한다. 이 소설은 베티의 편지글과 포피의 법정 장면이 교차되면서 전개되는데, 법정에서 갑자기 '마이클'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면서 재판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포피와, 베티, 그리고 매튜와 마이클까지 이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과연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일까?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등장하는 심리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제인 코리 (Jane Corry)는 전직 잡지 기자로, 3 년 동안 남성 범죄자들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상주하며 글을 썼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인 My Husband's Wife, Blood Sisters, The Dead Ex and I Looked Away를 집필했다. 또한 그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수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Daily Telegraph, My Weekly magazine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RESCUE ME

가제 : 구해줘

저자 : Sarra Manning

출판사: Kimberley Atkins at Hodder

발행일: 2021년 여름

분량 : 303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사랑 받고 싶은 여자와 사랑이 두려운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한 특별한 개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마고는 간절히 사랑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애인은 물론이고, 키우는 고양이조차 마고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주지는 못했다. 한편 윌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랑이 두려운 남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고와 윌은 지역의 한 유기견 구조 센터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마고는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까?

마고 밀우드는 자신의 반려묘 퍼시처럼 전형적인 '고양이형' 인간이었다. 마고는 최근 두 달 동안 헤어져있던 남자 친구 조지를 다시 만나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뭔가 둘의 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조지는 퇴근 후 마고에게 술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마고는 그 만남이 당연히 저녁 식사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고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저녁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했고 우연히 그의 가방 속에 분명 마고의 것은 아닌 빨간 레이스가 달린 팬티를 보게 되었다. 마고는 아이를 가지기 힘든 나이인 서른 여섯이 넘어가기 전에 아기를 낳고 싶어 했다. 하지만 조지는 아기를 키우며 함께 가정을 꾸리는 일은 커녕, 결혼 할 마음의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둘은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다. 마고는 완전히 분노로 눈이 멀 것만 같았다. 만약 이십 대의 마고였다면 이런 실연에 이렇게까지 힘들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른 여섯이 된 마고에게는 앞으로 다른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더 절망스럽게 느껴졌다.

집으로 향하던 길, 마고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속 인물은 대뜸 마고가 '퍼시'라는 한 고양이를 혹시 납치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퍼시는 분명 마고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였다. 퍼시는 마고에게 늘 거리를 두고 있는 고양이였는데, 밤이면 바깥을 쏘다니다가 들어와 울어대곤 했다. 하지만 퍼시 역시 마고의 기대와 달리, 자신을 돌봐주는 인간에게 죽은 생쥐나 새를 갖다 주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살가운 고양이는 아니었다. 게다가 퍼시는 마고가 자신의 턱을 조금만 만져도 싫어했고 마고를 할퀴거나 물기까지 했다.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퍼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퍼시는 점점 토실토실해져 갔고, 마고는 그런 퍼시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피를 뚝뚝 흘리며 퍼시의 목줄에 퍼시를 집에 들여보내지 말고 함부로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과 자신의 전화 번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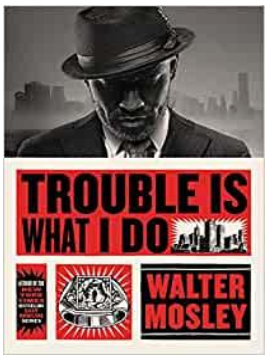
적은 메모장을 달아두었었다. 마고에게 대뜸 전화를 건 이 부부는 바로 퍼시의 목에 달린 그 메모장을 보고 전화를 건 것이었다. 마고는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펑펑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퍼시가 자기네 고양이라고 주장하는 전화 속 그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그 집에는 어린 소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퍼시가 자기들의 고양이이며, '푸딩'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퍼시가 마고의 집을 떠나 이 집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들과 부쩍 친해졌고 부모들 역시 그를 그냥 키우기로 한 것이었다. 마고는 퍼시를 키우며 그동안 피투성이가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냥 퍼시를 그 아이들에게 주기로 하고 부부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홀가분하게 집을 나섰다. 마고는 이제 '강아지형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다.

한편 윌은 거의 일 년째 다니고 있는 심리 치료실에서 앞으로 더 치료를 이어갈지 말지 의사와 상의 중이었다. 윌은 최근까지 항우울제를 먹다가 중지한 상태였고, 공황발작 증상을 갖고 있었다. 윌은 사실 지난 이십 년간 가족을 떠나 산 사람이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그는 집을 떠났고 그 다음엔 맨체스터, 베를린, 파리에서 살다가 지난 10년간은 뉴욕에서 살았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그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고, 오랫동안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가족과 자주 만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점차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 윌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줄 상대, 즉 개를 키워보기로 했다. 그리고 때마침 마고 역시 같은 결심을 했다.

개를 입양하기 위해 유기견 센터에 간 마고는 '블로썸'이라는 개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부드러운 털에 큰 귀를 본 그녀는 첫눈에 그 개가 자신의 개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당장 그 개를 데려갈 형편이 되지 못했고, 그녀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블로썸이 새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면 언제든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일주일 뒤에 블로썸을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때 그 센터에 들어선 윌은 얼핏 마고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었고 본래 계획과는 달리 마고를 도와 그녀가 일주일 뒤에 무사히 블로썸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윌은 마고와 블로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마고와 블로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그리고 둘은 블로썸이 윌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블로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개'라는 사랑스러운 생명체 덕분에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재치가 가득한 로맨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사라 매닝 (Sarra Manning)은 20권이 넘는 청소년 문학과 성인 상업 소설 (현대 및 역사)의 작가이자 가장 최근작으로는 <The Rise and Fall of Becky Sharp>가 있다. 또한 그녀는 Red Magazine의 문학 편집자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작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반려견인 베스티에게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쓰게 된 소설이다.



제목 : TROUBLE IS WHAT I DO

가제 : 문제적 인간

저자 : Walter Mosley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25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2019 년 LA 타임즈가 주최한 Robert Kirsch Award 수상 작가의 신작**

***" 월터 모슬리처럼 인종 문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해체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스릴러 작가는 없을 것이다."- 올린 코그딜**

레오니드 맥길은 평생 뉴욕 사건 현장에서 일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필립 워리는 그의 뛰어난 본능과 범죄 세계에 대한 그의 내부적인 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레오니드야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완벽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오니드는 곧 그가 맡게 된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레오니드 맥길은 뉴욕에서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60세의 흑인으로 베테랑 탐정이었다. 그의 사무소에는 유능한 비서이자 접수원인 마르디와 취미로 신용사기와 온갖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그의 아들 트윌이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92세 고령의 미시시피 출신 전직 블루스 연주자였던 필립 워리, 일명 '캣피쉬'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레오니드가 캣 피쉬에게 여기에 찾아온 이유를 묻자, 그는 싱긋 웃으며 지난 64년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직해 왔다는 한 파일을 꺼냈다. 그 약속이란 캣피쉬에게 그 서류를 맡긴 여성이 그에게 신신당부한 것이었는데, 그녀가 죽고 난 후 때가 되면 그녀의 재산을 물려 받을 상속인의 자녀 즉 그녀의 손주에게, 특히 손주가 여성일 경우에만 필요 시 이 서류와 편지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캣피쉬의 부탁 역시 레오니드가 직접이 서류 파일을 그녀의 손녀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오니드는 왜 이런 단순한 일을 캣피쉬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사립탐정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의아했다. 그러자 그는 이 파일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그 여성의 손녀이며자 찰스 아우구스투스 스턴만의 딸인 저스틴 페넬로피 스턴만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이 가족은 미국의 대부분의 대형 은행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개인 은행을 소유한 집안이었다. 게다가 찰스는 세 명의 대통령의 고문이었으며, 전국민이 다 아는 악독한 인종차별 주의자이기도 했다. 스턴만가에서는 오래 전, '메이플라워호의 자매'라고 불리는, 선별된 청교도인들 출신 중 여성만을 따로 모아 결성한 한 사적 모임을 결성했는데 찰스의 딸인 저스틴이 곧 이 조직의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찰스 스턴만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앤드류 핀터라는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레오니드가 직접 읽은 그 편지에 내용에 따르면 이 파일과 편지의 주인공은 저스틴의 할머니인

루신다 피츠 스턴만이 쓴 편지였고 그녀의 가족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의 후손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우수 혈통이라 불리는 가문의 출신이었다. 이 가문은 미국 건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미국 민주주의 기반을 닦은 사람들을 배출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부모의 대저택의 정원사로 일하러 오게 된 젊은 뮤지션 필립 워리를 만나게 되면서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고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가문이 가진 어두운 이면을 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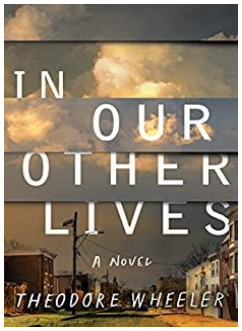
어느 날 밤 루신다는 우연히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캣피쉬를 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 루신다는 캣피쉬에게 기타를 배우며 점점 그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루신다의 아버지가 루신다가 캣피쉬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캣피쉬를 잔인하게 폭행했다. 캣피쉬는 그 후 며칠 간 고열에 시달리며 왼쪽 시력을 잃은 채 지하창고에 감금되었고, 루신다 역시 자신의 방에 갇혀버렸다. 그리고 그 때, 루신다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흑인 남자인 캣피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다. 캣피쉬는 둘의 아이가 흑인으로서 그곳에서 자라는 것은 고난일거라고 생각했고,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미시시피로 데려갈 생각으로 출산일을 기다렸다. 하지만 둘의 아이인 찰스는 겉보기엔 완벽한 백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고, 영영 자신의 몸 속에 흑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백인 우월주의를 답습한 인종차별주의자로 성장한 것이다.

편지에 끝에서 루신다는 자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성이 가족의 비밀을 알아야 하며 이 파일에 동봉된 '수사나 알란'이라는 여성의 일기장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족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편지와 서류를 캣피쉬가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전 언젠가 자신의 손녀에게 전해달라며 맡긴 것이었다.

사실 아주 오래 전 캣피쉬는 자신의 아들인 찰스에게 찾아가 자신이 그의 생부임을 고백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히려 분개하며 그를 쫓아냈고 캣피쉬가 저스틴에게 접근할 경우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때문에 레오니드는 캣피쉬의 요청에 따라 저스틴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 남은 이주 안에 그 편지를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후 레오니드는 찰스가 전설의 암살자인 어니 엑클스를 고용해 캣피쉬를 죽이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레오니드는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캣피쉬를 구할 수 있을까? 인종차별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통해 긴장감 있는 전개를 펼치는 흥미진진한 느와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월터 모슬리 (Walter Mosley)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작가들 중 한 명이다. 미국 미스터리 작가의 대가인 그는 Edgar Award , Anisfield-Wolf Award, Grammy, PEN USA의 Lifetime Achievement Award 및 NAACP Image 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의 책들은 지금까지 전세계 20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그의 단편 소설은 New Yorker, GQ, Esquire, Los Angeles Times Magazine 및 Playboy를 포함한 다양한 간행물에 실렸으며 그의 논픽션은 New York Times Book Review, New York Times Magazine, Newsweek에 게재되었다. 최근작으로는 『Charcoal Joe』와 시리즈물인 『Easy Rawlins』가 있다.



제목 : IN OUR OTHER LIVES

가제 : 타인의 삶

저자 : Theodore Wheeler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20년 3월 3일

분량 : 254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잃어버린 남편과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와, 슈발러 요원의 조사 기록물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이야기. 기독교와 무슬림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신앙을 병치한 이 이야기는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할 것이다."-「퍼블리셔 위클리」**

*** "미국의 테러와의 수십 년에 걸친 전쟁을 배경으로한 이 소설은 그동안 미국인 개인들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과 소통의 부재를 묘사하고 있다." -『After the Flood』의 저자, 카산드라 몬탁**

오마하 출신 간호사인 엘리자베스 홀랜드는 어느 날 오랫동안 실종되었던 자신의 남동생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동생이 살아있다는 기쁨도 잠시, 엘리자베스는 그의 실종배경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는 반역자일까, 무고한 인질일까?

2008년 9월 18일, 엘리자베스는 일어나자 마자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난 12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의 반란군 거점지역이었던 한 산에서 선교 여행을 하던 중 감쪽같이 실종된, 전직 ROTC 생도이자 기독교 선교사였던 동생 타일러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처음 어머니가 엘리자베스에게 동생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누군가를 찾았다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잃은 소중한 사람들 중 대체 누구를 찾았는지 너무나 궁금했었다. 그녀는 동생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과 남편까지 잃었기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사실 동생을 찾았다는 소식보다는 남편을 찾았다는 소식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착잡한 마음으로 전화기를 붙잡은 채로 텔레비전 뉴스를 틀었다.

뉴스에 등장한 영상 속 타일러는 아프가니스탄의 한 동굴에 머물고 있었고, 뉴스 진행자는 계속해서 그를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와중에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그녀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타일러의 실종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장면을 보며 머릿속에서 온갖 의문들이 떠올랐다. 뉴스 진행자는 왜 타일러를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는지, 남편 닉은 왜 3년 전 아무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며, 겨우 2개월 된 신생아였던 그녀의 아이는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는지 말이다. 그녀가 느끼기에 이 모든 일들은 신의 섭리로 칭할 수 없는 거대한 부조리극 같았다.

열흘 후, 한 연방 요원 프랭크는 엘리자베스가 일하고 있는 한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 영상은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가 제작한 협박 영상으로, 영상 속 타일러는 자신의 몸값과 파슈튼 사람들에게 잔학 행위를 행하도록 명령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가 직접 전세계의 언론 매체에 메일을 통해 보낸 것이었다. 영상 속 타일러는 시선은 아래를

향한 채, 미국 정부가 관타나모에 억울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 더 많은 테러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이상한 점들 중 하나였다. 보통의 인질들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납치 영상에서 이런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인질이 범죄자에게 감화되어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 역시 결코 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슬림도 아닌, 자신의 부모님만큼이나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타일러에게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 요원 프랭크는 타일러가 대체 왜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타일러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엘리자베스를 찾아온 것이었다. 즉 프랭크의 임무는 타일러가 무고한 인질인지, 아니면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반역자인지 알아내야 했다. 프랭크는 엘리자베스와 이야기하던 중 엘리자베스가 타일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은연중에 남편 닉을 언급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그는 끈질긴 질문 끝에 엘리자베스와 부부와 아이에 대한 비극적인 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얼마 후, 프랭크는 조사 중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 엘리자베스의 가족 사람들 중 오직 타일러만이 유일하게 아무런 종교도 없는 닉과 가까이 지내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타일러가 실종된 그 산이 지정학적으로 충분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그 장소로 자전거를 타러 간 것인지 의아했다. 게다가 타일러는 계속 해서 언론매체에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횟수가 점차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이메일에 침례 요한과 종말론을 주장하고, 자칭 재림 예수인 데이비드 코레쉬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혁명가로서의 자기 자신과 이 운명에 얼마나 자신이 사활을 걸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을 반란군, 혹은 전도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닉의 실종 역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소설은 감시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 된 정보에 자세한 설명을 더한 12 개의 파일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민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전화 내역, 온라인 활동, 메타데이터 등 개인들의 공적, 사적 생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기록 되어 있다. 9.11 테러 이후 변해버린 미국인들의 삶과 상실, 분노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개인 생활에 얼마나 깊게 침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시어도어 휠러 (Theodore Wheeler)는 단편 소설 모음집인 Kings of Broken Things and Bad Faith의 저자이다. 그의 작품은 Midwest, Southern Review, Kenyon Review, Narrative magazine 및 Boulevard에 실린 바 있다. 그는 크레이튼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오마하 문학 축제를 공동 지휘하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FUGITIVE WORLD

가제 : 도망자의 세계

저자 : Ben Mauk

출판사: Farrar, Straus

발행일: 2021년 12월 예정

장르 : 인문

*** 최첨단 IT 기술과 더불어 점점 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극우주의로 인한 국가 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도망자처럼 세계를 떠돌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National Magazine Award'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으며, 「NYT 매거진」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언론인 벤 마우크는 지난 몇 년 간,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 민족, 유목민, 원주민,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국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풍경을 살펴보며,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지역 사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고 하는 여정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집단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왔지만, 지난 200년 동안에는 더욱 급격히 그 수가 줄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점점 다르게 정렬되고 있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체제가 시장 세계 시장에 종속됨에 따라, 그나마 살아 남아있던 지역 자치권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그와 같은 지역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결국엔 비국가 단체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소수 집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료적이고 세상을 균질화 하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가는 금, 자원, 인력 및 선전의 형태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의 힘을 줄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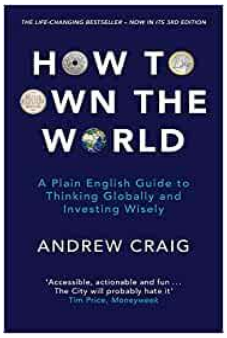
또한 이 과정에서 비국가단체들이나 무국적 집단은 뇌물 수수와 갈취 앞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민간 기업은 망명 캠프들 덕분에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또한 많은 무역 루트들과 산업이 토착민 공동체의 땅을 빼앗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들을 노예 노동에 투입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 힘의 논리에 동화하거나 목숨과 권리,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직도 소수 집단이 많이 남아 있는 중앙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면서 오늘 날의 비국가단체에서 외부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한다. 독자들의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며 캄보디아의 수중마을에서 카자흐와 중국 국경 사이에 있는 유목민들에 이르기까지 이 이질적이고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국가에 의

해서도 조종 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근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군상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화와 국가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무국적자'와 '도망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작은 공동체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또 무엇을 잃게 될지, 이 도망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 소개>

벤 마우크 (Ben Mauk)는 New York Times Magazine, Harper 's, The New Yorker, London Review of Books, Virginia Quarterly Review, n + 1 등 유명 매체에 길을 기고 하고 있다. 2018년 그는 National Magazine Award의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2019 년 Iowa Writers' Workshop을 졸업했으며 Jamal Khashoggi Award for Courageous Journalism, New York University's Reporting Awardd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글을 쓰면서 Western Writers of America, the Overseas Press Club of America, the Pulitzer Center on Crisis Reporting, the Matthew Power Literary Reporting Award, MacDowell Fellowship의 지원을 받았다.



제목 : HOW TO OWN THE WORLD

가제 : 이 세계를 내 손 안에 넣는 법

저자 : Andrew Craig

출판사: John Murray Learning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경제

*** '진정한 부란 월급이 아닌 지식과 관련이 있다.' 빈부 격차 심화 속에서 내 돈을 굴려 직접 큰 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

***아마존 베스트 셀러**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이용해 돈을 번 사람을 의미한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확률로 가난해질 것이며, 이 과정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월급이 엄청 오르거나 투자로 이익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미 모두 가난해질 운명이라는 것이다. 노르웨이와 호주를 제외한 오늘날 전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을 계속 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보조금으로는 절대 남은 여생은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최적화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전적 투자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자본주의의 기본적 진실은 노동의 대가로 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노동자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 역시 투자를 통해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EMH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따르면, 올바른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주식 시장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투자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지라도 금융시장에서 평균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금융 시장에서든 자산이 어디서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신뢰할만한 부의 정보에 반응하는 똑똑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가격은 항상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가설은 투자자가 반드시 주어진 자산만을 사야만 하고 시장 전체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은 우위나 이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학문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다. EMH 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그리고 자기 자본을 활용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비대칭 정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은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EMH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 현상이 곧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가 스스로 가진 돈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 당신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
* 당신 또한 수많은 금융 전문가보다 더 잘 돈을 굴릴 수 있다.
* 내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직장 생활에서 벌 수 있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액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오늘 날 투자는 그 어느 때 보다 쉬워졌다.
* 지금이 바로 투자를 시작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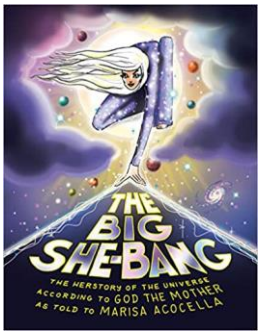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여 많은 돈을 벌고 최종적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따라 하기 쉬운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책이다.

<목차>

로저 그리포르 경의 서문
작가 서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제 3 판 서문
1 부 : 큰 그림 :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1장. 왜 돈을 투자해야 합니까?
2장. 많은 전문가들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이유
3장. 재정에 관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
4장. 두 가지 중요한 투자 테마
(이하 생략, 총 3부 1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앤드류 크레이그 (Andrew Craig)는 는 20 년 이상 런던 시에서 근무했으며 2011 년에는 개인 금융 웹 사이트 인 plainenglishfinance.co.uk를 설립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이후로 그는 The Spectator, Shares, MoneyWeek, YourMoney, This Is Money and Money Observer 등 수 많은 매체에 등장했다. 또한 그는 Bloomberg and Shares Radio와 IG TV의 인터뷰에 출연했으며 2015 년 영화 'The Emperor 's New Clothes'에도 출연한 바 있다.



제목 : BIG SHE-BANG
가제 : 그녀들의 빅뱅
저자 : Marisa Acocella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20년 11월 1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그래픽 노블, 페미니즘

*** 저명한 뉴욕의 만화가 마리사 아코셀라가 영리한 페미스니스트적 시각으로 바라본 지난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지난 수 세기 동안 우리의 역사는 수 많은 남자들이 써 왔다. 이에 저자 마리아 아코첼라는 그녀만의 관점을 통해 인류의 지난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과감한 도전을 시도했다. 이 유쾌하고 영리하며 영광스러울 정도로 빛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대한 '허스토리'(Her-Story)이며 지도자와 행동가의 자리에서 언제나 여성들의 존재를 생략해버렸던 남자들의 역사서를 대체하고자 한다.

이 책은 ' 마더 (The Mother)'라고 불리는 신의 목소리를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이브에서 동정녀 마리아, 막달레나, 페로세포네, 칼리, 이시스, 딜라일라에서 RBG, 글로리아, 타라나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남성 중심 역사 속에 가려져 있었던 여성 혁명가들을 소환한다. 저자는 원죄와 파멸, 배신, 요술 등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비논리적인 악한 행위와 혐의로 인해 비난받고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렸거나 지배당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인류 최초 역사부터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놀라운 컬러 그래픽 이미지로 가득한 이 책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대담한 방식으로 놀라운 재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신의 어머니가 저자 아코첼라의 스튜디오에 나타나 쉬-뱅 (SHE-bang)을 일으키면서 아코첼라가 그녀와 함께 서사적 페미니스트적 여정을 함께 떠나면서 시작된다. 어머니 신은 아코첼라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들이 이 거대한 인류 역사의 부속물로만 여겨져 왔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는 인류 문명 역사 속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역사적 장소로 아코첼라를 데려간다. 과감하고 실험적이며 흥미로운 이 책은 오늘 날 우리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밝히고 인류 역사 속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고 꿈꿀 수 있도록 무한한 영감과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자기 소개>

마리사 아코첼라 (Marisa Acocella)는 The New Yorker의 만화가로 The New York Times, Glamour, The Oprah Magazine 등 다양한 잡지에 작품을 기고 했다. 전작으로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인 Ann Tenna , Cancer Vixen , Just Who the Hell Is She Anyway? r가 있으며 이중 그녀의 회고록이자 그래픽 노블인 Cancer Vixen 은 타임지가 뽑은 10 대 그래픽 회고록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의 미국 전국 만화가 협회 그래픽 소설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제목 : HOW TO BE SAD

가제 : 슬픔과 마주하기

저자 : Helen Russell

발행일: 2021년 초

장르 : 처세

*** 슬픔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회고록이자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낙관과 기대가 담겨 있는 선언문!**

모두가 행복을 꿈꾸지만 우리 삶에서 슬픔을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슬픔'이라는 감정은 보통 가슴 아픈 일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그 때문인지 이미 서점에서는 슬픔과 상실 혹은 변화에 관한 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책들 중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함을 가진 동시에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은 찾기 어렵다. 슬픔이란 그만큼 다루기 어렵고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은 또 다른 타인이 도울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슬픔을 겪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당사자를 도우려고 손을 내미는 타인들 또한 상대방이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힘들어하기 마련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몇몇 문화권에서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러한 감정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애도하는 행위는 큰 의미를 가진 공공 업무와 같은 것이며 부탄에서는 아예 화장터를 도시 중앙에 두어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내내 상실과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각인시킨다. 브라질에서는 행복을 향한 우울과 향수를 의미하는 사우다지 (saudade)를 기리며 휴일을 보내는 특별한 명절도 있다.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보았을 때에는 인생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슬픔에 빠져 하루 종일을 기념하는 휴일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슬픔이란 언제든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슬픔을 현명하게 마주하고 슬픔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 전문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헬렌 러셀 역시 최근까지만 해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슬픔과 지나간 슬픔으로 슬픔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영영 슬픔이란 감정에 익숙해지지 않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저자의 부모는 곧 헤어졌고 아버지가 새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과 감정을 거부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성장한 저자는 자신의 몸과 식습관으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되었고 오래도록 부모가 되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불임'이라는 충격적인 현실까지 받아들여야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 유명 심리학자, 유전 학자, 신경 과학자 및 역사가들의 최신 연구와 슬픔에 전 세계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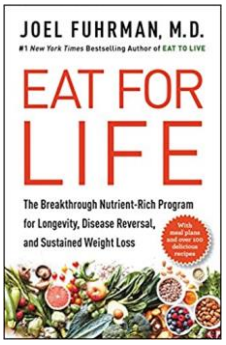
만화가, 운동 선수 및 변화론자의 경험 및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대하고 슬픔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를 안내하고자 한다. 슬픔을 겪어 보았던 사람, 즉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목차>

서문
제1부:슬플 때 자신을 돌보는 방법
제1장. 슬픔과 싸우지 마라
제2장. 낮은 기대치
제3장. 시간을 허용하기
제4장. 초과 (& 박탈)를 피하라
제5장. 화를 내보세요
제2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
제6장. 사과는 그만
제7장. 도착의 오류
제8장. 관점을 취하라

<저자 소개>

헬렌 러셀 (Helen Russell)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The Living Of Living Danishly 』의 저자이다. 이 책의 영어판은 175,000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1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일러스트북인 『The Atlas of Happiness』는 또 다른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20 여개의 국가에서 출판되었다. 저자는 현재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으며 Guardian의 스칸디나비아 통신원으로 일하고 있다.



제목 : EAT FOR LIFE

가제 : 나를 살리는 식단

저자 : Joel Fuhrman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20년 3월 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건강

***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

*** 제대로 건강한 식단만 섭취한다면 결코 아플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책.**

노화 방지와 장수를 위해 설계된 식단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될까? 인생 후반기에 암과 치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식단은 과연 무엇일까? 역사상 유래 없는 음식의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많은 현대인들이 잘못된 식습관과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각종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에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건강식, 다이어트 관련 책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무엇이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운 식단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만연한 낭설과 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가능하게 하고 현대 세계의 건강 식습관의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영양 특성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식단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식단이 존재한다면 그 식단은 절대 인기나 유행에 좌지우지 되는 식단이어서는 안 된다. 제한된 지식이나 잘못된 과학, 대중의 인기에만 호소하는 그런 식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30년 이상 외과의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엘 퍼만은 편견과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지식만을 활용한 식단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퍼먼 박사는 본인 역시 의사이긴 하지만 의사나 약물은 결코 우리의 건강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가장 효과적인 건강 관리는 적절한 자기 관리이며 식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만들어진 영양 기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만 잘 따른다면 빠르게는 3개월, 늦게는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의학적 문제를 예방하고 심지어는 회복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꽤나 대담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저자는 철저히 과학적 접근 방식과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저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식물(미량 영양소)을 통해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너무 적게 섭취하는 반면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대식 영양소)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에 더해 포장 및 가공 식품, 육류 및 유제품, 소금 및 설탕을 다량 섭취하게 되는 바람에 생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활력을 잃고 우리의 일상 건강까지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풀먼 박사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채소, 콩, 양파, 버섯, 딸기 및 씨앗과 같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맛있고 풍부한 음식에는 가장 많은 양의 미량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당뇨병과 심장병을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우리가 가진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 갈망까지 완화시켜준다. 최신 영양 과학에 뿌리를 둔 요리법, 식단 계획 및 직접 이 방법을 시도한 회원들의 평가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 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

<목차>

서문: 영양 식단
제1장. 장수의 과학
제2장. 당신의 호르몬과 건강
제3장. 식물에 관한 모든 것
제4장.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달렸다
제5장. 암은 예방할 수 있다.
제6장. 체중 감량을 위한 투쟁
제7장. 우리는 나을 수 있다
제8장. 어떻게 요리하고 먹고, 살아야 할까
제9장. 영양 식품 조리법

<저자 소개>

조엘 풀먼 (Joel Fuhrman)은 영양 및 자연 치유, 가정 의학과 의사이자 영양 연구 재단 회장 및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 위 작가인 세계적인 전문가이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둔 PBS 스페셜을 포함하여 수백 편의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전작으로는 여섯 권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Eat to Live, Super Immunity』, 『The End of Diabetes』, 『The Eat to Live Cookbook』, 『The End of Dieting』, 『The End of Heart Disease』 외에도 7권의 인기 건강서가 있다.

제목 : TRANSITIONAL THINKING

가제 : 트랜지셔널 띵킹: 생각의 전환

저자 : Munroe Bergdorf

출판사: Bloomsbury

발행일: 2021년 4월 예정

장르 : 에세이

"그녀는 강력하고 막을 수 없는 힘 자체이다. 세상은 그녀를 주목해야 한다." - 「틴 보그」
"먼로 버그도프는 LGBT 커뮤니티의 중요한 인물이다." - BBC
"모델 먼로 버그도프는 유색인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모든 역경을 타파해나가고 있다."
- 「허핑턴 포스트」

우리는 모두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늘 신경 쓰고 걱정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부터 현재 할리우드 영화들에 이르기까지 색다른 매력을 가진 인물들은 언제나 대중의 열광의 대상이었다. 작중 인물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반추하며, 상황을 스스로에게 대입하고 전환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환적 사고 방식'을 통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낙인, 편견, 수치심을 없앨 수 있다. 또한 민족적, 경제적, 성적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소외와 억압이 멈춰질 수 있다. 작가이자 모델, 트랜스 젠더 활동가 및 박사 학위 소지자인 이 책의 저자 먼로 버그도프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된 것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전환적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 해볼 것을 추천한다.

저자의 개인적 생각을 담은 회고록이자 사회 논평적인 성격 또한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교차적인 방식을 활용해 책의 내용을 청소년기, 젠더, 관계, 정체성 및 인종 총 6개의 장으로 나누었는데 각 장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의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이론들과 전문가들을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독자들은 성소수자이자, 흑인이자, 트랜스 여성인 저자의 시선을 통해 이 사회의 교차점에 분명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빌어 인간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저자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성전환을 다른 사회적인 전환적 서사와 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전환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지 자신을 발견하는 또 다른 과정임을 강조한다.

<저자 소개>

먼로 버그도프(Munroe Bergdorf)는 정기적으로 국내 및 국제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하여 인종, 다양성, 성별 및 LGBTQ 주제에 대해 논평하고 있으며, Grazia, i-D, 이들, them.us, Paper Magazine, Evening Standard 및 Guardian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또한 저자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인 'What Makes A Woman'은 2018 년 5 월 영국 네트워크 Channel 4에 방송되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저자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변화하는 성별과 정체성의 세계를 살펴보았다. 2019 년 저자는 브라이튼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그녀의 첫 번째 책이다.